

aT, K-푸드 ‘유럽상륙’ 채비… 파리·밀라노 현지서 ‘호응’

농식품부와 ‘파리 K-푸드위크’
현지 식당 13곳서 특별메뉴 선포
韓 농축산식품, 佛 수출액 16% ↑

밀라노 ‘K-푸드 팝업 스토어’
현지 소비자 9000여명 방문

K-푸드의 유럽시장 진출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이와 관련해, 프랑스 파리에서 ‘K-푸드위크’를 개최하고 이탈리아 밀라노에는 팝업스토어를 설치하는 등 유럽 주요도시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aT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9월29일~10월6일 기간 ‘2026 파리 K-푸드위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지 레스토랑 13곳에서 한국산 쌀·김치·장류 등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한 특별메뉴를 선보였다.

행사에 참여한 현지 조리장(셰프)들은 지난 8월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쌀 생산 현장과 전통식품 명인들을 찾아 한국 식재료의 맛과 가치를 직접 경험했다. 특히 정관 스님에게 사찰음식과 한국 음식의 철학을 배우고 강민철·조희숙·조은희 조리장 및 식품명인들과도 교류했다. 이들에게서 얻은 영감을 각자의 요리에 접목했다.

이번 K-푸드위크에는 프랑스 전역에



‘2026년 파리 K-푸드위크’ 기획·개최에 참여한 관계자들 모습.

서 13개 레스토랑이 참여했는데, 코르시카의 ‘르쁘띠레스토랑’ 등이 선보인 한국산 식재료 활용 요리가 방문객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파리1구 몰리에르광장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미술랭 3스타 레스토랑 소속의 김민재 씨를 비롯한 프랑스 요리 전문 조리장 8인이 창작 메뉴를 만들어 보였다. ▲김치와 깻잎을 활용한 허브쌈 ▲쌀과 된장을 접목한 코리안 이란치니 ▲조청을 곁들인 요리요리 ▲디저트 간장캐러멜 ▲참쌀과 꿀로 만든 개성주악화와 ▲간장을

활용한 굴 달걀찜 등이 눈길을 끌었다.

행사장에는 정관 스님과 미술랭 스타조리장인 다비드 투탱, 현지 미식업계 관계자, 언론인, 인플루언서 등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올해 8월까지 한국산 농축산식품의 프랑스시장 수출액은 351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 증가했다. 특히 소스류 수출액이 23% 늘어나는 등 장류를 포함한 한국산 소스의 유럽 진출 가능성도 커졌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한국 식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K-장류를 활용한 요리교실이 열리고 있다. /aT

재료가 세계 미식 무대에서 단순히 이국적인 재료를 넘어 새로운 요리의 영감을 주는 식재료로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지 셰프 및 외식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해 한국 식재료가 세계인의 일상적인 식문화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T는 앞서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운영한 ‘K-푸드 팝업 스토어’에는 현지 소비자 9000여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밀라노 패션위크 SS 2027’

와 연계해 K푸드를 한국의 문화와 일상을 함께 경험하는 라이프스타일로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aT는 한국 전통 자개장을 활용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간을 연출했다. 스토어에는 장류부터 라면·음료·건강식품까지 다양한 범주의 K-푸드를 전시했다.

이외로, K-소스(장, 김치분말)를 활용한 요리를 선보이는 현지 유명 조리장들의 요리교실도 열렸다. aT는 이탈리아의 식전주 문화에서 착안해, 한식메뉴에 유자·오미자·매실 등을 활용한 K-카테일을 곁들여 즐기는 이른바 ‘아페리티보-코레아노’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팝업스토어를 방문한 이탈리아인 테레사 씨는 “평소 한국식 김치를 좋아하고 즐겼는데, 쿡클래스를 통해 이탈리아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다”며 소감을 전했다.

aT는 팝업스토어와 연계한 농식품 세일로드쇼도 개최했다. 국내 수출기업 5개사와 유럽 7개국 바이어 7개사가 참가해 제품 품평회 1:1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회에서는 총 34건·154만 달러 규모의 상담이 이뤄졌는데, 치킨소스 등이 현지 바이어의 관심을 끌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근로복지공단, ‘QR전자신고’ 서비스 개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전송 시
공단이 정보 읽고 자동 접수
연간 약 7만건 서비스 활용 예상

근로복지공단이 ‘QR 전자신고’ 서비스를 12일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전송하면 공단이 자동으로 접수하는 체계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 제출하는 공통서식이다. 사업장이나 세무·회계사무소가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공단에 전송하면, 공단 시스템이 QR 코드에 담긴 신고 정보를 읽어 자동으로 접수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고용·산재보험 토달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는 가능했지만,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QR 전자신고는 지원되지 않았다.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출력해 팩스로 보내면 공단 직원이 수동으로 접수해야 했다. 또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앞으로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전송한 신고 정보가 자동으로 접수되고 관계 기관에도 전송된다. 사업장과 세무·회계 사무소는 신고서를 출력해 팩스로 보내는 번거로움을 덜고, 공단의 접수 업무도 한층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3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했다.

앞서 지난 2019년에는 공공기관 최초로 QR 코드를 활용한 민원서류 자동접수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2022년에는 보수 총액 신고서 등 10종 민원서류에 대해 QR 코드에 신고 정보까지 담아 자동으로 접수되는 QR 전자 신고를 도입했다. 이번에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까지 전자신고 범위를 확대해 사업장의 신고 편의를 높였다.

연간 약 7만 건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QR 전자신고 서비스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복지공단이 우선 12일 서비스를 시작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박승훈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업장이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강원랜드 외국인 이용객, 22년째 2% 하회

올해 전체 입장객 185만 9015명 중
외국인 2만 986명… 1.13%에 그쳐

강원랜드가 글로벌 공공형 복합리조트 도약을 선언하며 해외 고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카지노 이용객 100명 중 99명은 여전히 내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비중은 22년 연속 2% 미만에 머물렀고, 입장객 수마저 20여 년 전보다 오히려 줄어들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카지노 전체

입장객 185만 9015명 중 외국인은 2만 986명으로 전체의 1.13%에 불과했다. 나머지 98.87%(183만 8029명)는 모두 내국인이었다.

이 같은 ‘외국인 가뭄’ 현상은 20년이 넘도록 고착화된 상태다. 집계 첫해인 2004년 1.88%였던 외국인 비중은 지난해까지 22년 연속 단 한 번도 2%를 넘지 못했고, 올해 역시 1.13%에 머물렀다.

외국인 입장객의 절대 규모도 뒷걸음질 쳤다. 2004년 3만 3581명이던 외국인 입장객은 지난해 2만 6948명으로 19.8% (6,633명)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카지노 입장객이 178만 4730명에서 247만 8658명으로 38.9% 급증한 것과 정반대의

흐름이다.

앞서 강원랜드는 지난해 2월 전용 테이블 8대와 외국어 가능 직원을 배치한 외국인 전용존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글로벌 공공형 복합리조트 도약을 새로운 경영 방향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전용 시설 도입과 구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국인 중심의 카지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차규근 의원은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도약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외국인 비중은 22년 연속 2% 미만에 그치고 있다”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존 등 기존 유치 정책의 성과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내국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고객 구조를 개선할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마사회, 온라인 발매시스템 ‘더비온2.0’ 구축

고객·매출 데이터 축적해 서비스 개선

한국마사회의 경마배팅 시스템이 개선됐다.

마사회는 차세대 온라인 발매시스템 ‘더비온2.0’을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마 고객에 대한 서비스 역량 강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도모한다.

이 시스템은 고객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그동안 전자마권 시스템과 지원시스템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구축 및 관리되어 연계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마사회는 “신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인지부터 접점 서

비스 제공, 마케팅까지 순환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마권 이용 관련 고객·매출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고객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주요 기능은 큰 글씨모드와 같은 사용자 친화형 UI/UX를 비롯해 ▲다양한 경주정보 제공 및 포인트 합산 결제, 신규 배당률 정보 등을 지원하는 ‘모바일발매 서비스’ ▲동반예약, 선호좌석 빠른예약 등 신규기능을 제공하는 ‘통합입장좌석’ ▲고객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분석·최적화하고 고객생애가치 증대를 위한 ‘고객경험관리’ 등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남부발전-MIT, 에너지 전문인재 양성

에너지 교육·연구, 학술교류 확대

한국남부발전이 지난 8일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원자력공학과 산하 원자력재료센터와 에너지 분야 교육·연구 및 학술교류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에너지 전문인재 양성 등에서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에너지전환과 발전사통합에 대비한 인재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남부발전은 지난 6월 29일 수립한 ‘인재육성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 선도 연구·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미래 에너지 시장을 이끌 전문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남부발전은 MIT 원자력공학과와 에너지 분야 연구 및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임직원의 방문연구를 통해 MIT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한국남부발전 강태길 인사처장(오른쪽)이 지난 8일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원자력공학과 산하 원자력재료센터와 에너지 분야 교육·연구 및 학술교류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남부발전

위한 협력 기반을 확대해 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에너지 분야 교육 및 인재양성 ▲연구 및 학술교류 ▲에너지 기술 관련 정보 및 전문성 교류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세종=한용수 기자